

고르기아스의 연설문 「헬레네 예찬」의 수사적 분석*

양태종(동아대)

I. 분석의 필요성

수사학은 전통적으로 “훌륭한 말재주”로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훌륭한 분석재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¹⁾ 어떤 텍스트가 수사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그 텍스트는 이 규칙에 의하여 분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론이 규칙의 총체인 이상, 수사학은 텍스트의 구성원칙을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범주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사학을 이용하여 연설문을 분석하는 것에 대하여 굳이 그 정당성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연설문도 텍스트의 일종이고, 더욱이 수사학은 “용변”을 다루는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르기아스(기원전 약 485-380년)의 연설문 『헬레네 예찬』을 분석 대상으로 고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당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연설문은 수사학의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분석대상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말솜씨와 수사학의 관계에서 해소될 수 있다. 수사학의 체계가 잡히기 전에도, 이를테면 호메로스의 영웅들이 뛰어난 말솜씨를 발휘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말솜씨를 관찰하여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추상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수사학이 탄생되었음을 직시한다면,²⁾ 체계가 잡히기 전의 연설문에도 분명히 수사학적 요소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를 찾기 위하여, 고르기아스의 연설문을 분석하려고 한다.

고르기아스의 연설문 분석은 비단 수사학자들만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국외 단기 연구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보다 자세한 것은 H. F. Plett(2002: 19 이하) 및 양태종(2002a: 16 이하) 참고.

2) 수사학의 이론화과정에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구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S. Schweinfurth-Walla(1986: 86 이하) 참고.

연설문을 “수사학적 연설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명백히 훨씬 더 진지한 목적을 가진 것”(G. B. Kerferd 2003: 132)으로 파악하는 철학자들은, 분석을 통하여 “소피스트 연설의 논리적 상황”(Th. Buchheim 1986: 31)을 그려내려고도 하고 있고, 이 연설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로고스의 힘을 심리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로고스와 “의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며(앞의 책, 19 이하 참고), 그 힘을 고르기아스의 다른 글들과 연관시켜 “전체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며(B. McComiskey 2002: 38 이하 참고), 이 연설문을 “토대론자 foundationalist”에 대항하는 선구자이자 예술가의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하고(S. Consigny 2001: 209 이하), 수사학을 변호하려는 글로 해석하기도 한다(J. Paulakos 1983: 15 이하).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수사학적 요소의 확인에 있는 만큼, 이 연설문 속에 숨어있는 고르기아스의 수수께끼와 같은 여러 의도를 파헤치는 것은 다음 작업으로 미루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확인 작업과 병행해서 철학자들은 놓치고 있지만, 수사학자라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르기아스와 “식장연설”의 관계, 과연 고르기아스가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식장연설의 창시자인가 하는 것이다. 식장연설은 연설의 종류 중에서 기본적인 것이자³⁾ “용변가의 보모”로서(M. T. Cicero 1988: 33), 명예와 불명예를 따져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데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주 모음집』을 끌어들여, 고르기아스가 “공통말터법 loci communis”을 이용하여 “개별 현상에 대하여 칭찬하고 비난하는 연설을” 작성하였고, 연설가의 주된 능력을 “뭔가를 칭찬하여 치켜 올리거나 비난하여 다시금 깎아내리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히고 있다(M. T. Cicero 1986: 35).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우리의 연설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일부에서는 이 연설문의 제목과 궁극적 목적을 보고 우리의 연설문을 식장연설의 범주에 넣지만, 일부에서는 그 내용을 훑고서 헬레네를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 또는 “변명”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연설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소피스트 수사학을

3) 아리스토텔레스는 식장연설 이외에도 옹고 그름을 따져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법정연설”, 이득과 손해를 따져 부추기거나 말리는 “정치연설”을 구분하고 있다. 옹고 그름과 부추기는 것은 칭찬하고, 그름 것과 말리는 것은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장연설이 다른 종류의 연설의 기본이 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2002a: 90 이하) 참고.

대표하는 고르기아스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태동기의 수사학에 들어있을 수사학적 요소를 확인함은 물론, 칭찬연설의 요소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분석의 범주

텍스트의 수사적 분석은 지금까지는 주로 문체론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체론은 착상-배열-표현-암기-발표로 이어지는 수사학의 다섯 과정 중 “표현 *elocutio*”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수사학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의 분석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암기와 발표에서의 분석은 접어두기로 하고, 나머지 세 영역에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착상 *inventio*” 영역에서는 편파적 주장의 상황을 분석하게 될 “수사적 상황 *retorische Situation*”,⁴⁾ 주장 내용의 대변가능성 정도를 분석하게 될 “대변성 등급 *Vertretbarkeitsgrad*”,⁵⁾ 주장의 입장을 분석하게 될 “처지론 *Stasis-Theorie*”,⁶⁾ 주장에 사용되는 논거를 분석하게 될 “말터 *topos*”⁷⁾ 등이 범주로 나타난다.

“배열 *dispositio*” 영역에서도 착상을 위한 분석범주가 나온다. 이를테면 “들머리 *exordium*”에서는 호감 사기, 관심 끌기, 이해 돕기의 원칙에 기여하는 요소들을,⁸⁾ “얼거리 *narratio*”에서는 간결성, 명확성, 신빙성 원칙에 기여하는 요소들을,⁹⁾ “벼리 *probatio*”에서는 수사적 삼단논법인 “논증법 *enthymema*”이나 “예증법 *exemplum*”의 사용을,¹⁰⁾ “마무리 *peroratio*”에서는 요약과 감정자극, 즉 분노와 동정을 일으키는 원칙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찾게 된다.¹¹⁾

4) 이 범주에 대해서는 양태종(2002b: 313) 참고.

5)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89; 2002a: 128 이하) 참고.

6)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89; 2002a: 134-141; 2002b) 참고.

7)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6b; 2002a: 182-189) 참고.

8)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3a; 2002a: 190 이하) 참고.

9)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5; 2002a: 210-217; 2002b) 참고.

10)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6a; 2002a: 218 이하) 참고. “밝히기”란 용어를 “벼리”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양태종(2002b: 314) 참고.

문체 영역에서는 연설문에 나타나는 각종 “문체범주 Stilkkategorie”를¹²⁾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조법 antithesis”, “결말법 annominatio”, “앞말거듭법 anadiplosis”, “끝소리거듭법 homoioteleuton”, “닿소리거듭법 alliteratio”, “평행법 isokolon” 등을 통칭하는 이른바 “고르기아스식 무늬들 Gorgianische Figuren”¹³⁾ 가운데에서도, 희랍어 원문에 대한 필자의 이해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음운과 관련된 무늬들은 제외하고, 맥도웰의 번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¹⁴⁾ 평행법과 대조법, 그리고 키케로가 지적인 공통말터법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3. 분석의 실제

3.1. 수사적 상황

수사적 상황이란 연설의 모범인 법정연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편파적인 주장을 펴며, 상황제어자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사소통 상황을 말한다.¹⁵⁾ 이때의 당사자들은 편파적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말터를 이용하여 제어자와 상대방의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는 우선 두 가지 점에 국한하여 분석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하나는 제어자의 수용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주장의 관점이다. 전자는 당사자의 주장이 먹힐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주장이 먹히게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학의 전문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편

11)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7; 2002a: 238 이하) 참고.

12) 문체범주의 분류에 대해서는 양태종(2003a, 2003b) 및 H. F. Plett(2002) 참고.

13) 이 무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D. S. Allen(2001: 321 이하) 참고.

14) 이 글에서는 맥도웰의 번역(Gorgias 1999)을 기본 텍스트로 삼을 것이다. 고르기아스의 연설문 번역은 케네디가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Aristoteles 1991)에도 부록으로 실려 있다.

15) 이 상황을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화자, 상황제어자를 청자 또는 청중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원래의 청자였던 이해당사자 중 어느 한편은 제외되는 차이점이 있다.

파적 주장을 할 당사자는 대변성 등급을 고려하여 이야기의 시작을 구상하는 한편, 처지론을 고려하여 논지의 방향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고르기아스는 이런 구상에 맞추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하나의 분석자료가 우리 연설문의 2절이다.

말해야 마땅한 것을 당연히 말하는 사람은 헬레네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론을 펴야 할 것이다. 시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신념, 참화를 상기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그녀의 이름의 메시지,¹⁶⁾ 이 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화를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는 내 연설에 몇 가지 추론을 덧붙여 명제가 훼손된 이 여인을 고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싶고,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며,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이고도 싶고 그들의 무지에 종지부를 찍고도 싶다.

수사적 상황에서 보면, “말해야 마땅한 것을 당연히 말해야 하는 사람”과 “헬레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로 나타나고 있고, 전자의 입장에 있는 고르기아스가 후자의 입장에 있는 “시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상황제어자에게 편파적 주장을 펴려 하고 있다. 이때 그의 주장의 편파성은 상대 주장의 거짓을 밝히려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고르기아스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즉, 자기주장의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추론 logismos”을 덧붙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논지의 방향은 무엇인가? 처지론에서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기 위한 논지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추정, 정의, 속성 등에서 따지고 드는 것이요(= 따짐의 처지), 다른 하나는 법률 조항의 해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풀이의 처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연설문은 법률의 해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따짐의 처지에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이 처지에서는 논지의 방향이 “어떤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가?”(= 추정), 또는 “그 일이 무엇인가?”(= 정의), 또는 “그 일은 정당한가?”(= 속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고르기아스는 “헬레네는 남편을 버리고 알렉산드로

16) ‘Helene’란 희랍어 이름이 ‘파괴하다’란 뜻의 희랍어 동사 ‘helein’과 비슷하게 소리가 나서, 그녀의 이름을 트로이 전쟁이란 엄청난 재앙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Gorgias(1999: 29) 참고.

스를 쫓아 트로이로 떠난 적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긍정의 답을 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만약 이 물음에 대하여 부정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논란은 벌어지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그런 일은 무엇에 해당되며(정의의 단계), 그 일의 성격은 어떠한가(속성의 단계) 상대의 주장에 반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르기아스의 주장은 정의의 처지와도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헬레네의 행위가 불륜이나 간통 등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헬레네가 트로이로 떠난 그럴듯한 이유”(5절)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6절부터 19절까지 그녀의 행동의 정당성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는 강자와 약자의 구도 속에서 그녀를 떠나게 한 원인을 강자로, 떠난 그녀를 약자로 그려내어, 강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고르기아스가 속성의 처지를 이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속성 중에서도 행위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힘과 권위 때문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을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떠넘기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⁷⁾

하지만 이 수법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고르기아스의 주장은 상황제어자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어자는 지금 시인의 말에 공감한 나머지, 고르기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고르기아스는 주장하기에 앞서, 제어자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제어자의 수용태도를 고려하는 대변성등급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등급에 따른 다섯 가지 말거리들은 들머리에서 사용되는 원칙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의 연설문에서는 고르기아스 앞에 청중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이른바 “놀라운 말거리”가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말거리만큼은 다른 말거리들과는 달리 “비껴들기”라는 특수한 들머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들머리에서 이어질 것이다.

17) 라틴어로 ‘remotio criminis’, 독어로 ‘die Zurückweisung der Beschuldigung’이라 하는 이 수법에 대해서는 M. T. Cicero(1998: 35 이하)와 양태종(2002a: 135) 참고.

3.2. 연설문의 짜임새

총 21절로 된 우리의 연설문은 4분법이 완성되기 전인데도 놀랍게도 배열의 분석범주와 일치하고 있다. 즉, 1절부터 2절까지의 들머리, 3절부터 5절까지의 열거리, 6절부터 19절까지의 버리,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마무리가 그것이다. 버리에서는 헬레네가 트로이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이유, 즉, “신의 섭리”(6절), “폭력”(7절), “설득”(8-14절), “사랑”(15-19절)이 기술되고 있다.

3.2.1. 들머리

이야기의 시작인 들머리의 종류에는 “바로들기”와 “비껴들기”가 있고,¹⁸⁾ 원칙에는 호감사기, 관심끌기, 이해돕기가 있다. 따라서 들머리에서의 분석은 이 종류와 원칙의 확인에 목적을 두게 된다. 다음의 들머리를 보자. (본문의 번호와 밑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가) 도시의 자랑거리는 그곳 남자들의 뛰어난이요, 몸매는 아름다움, 정신은 지혜, 행위는 덕망, 연설은 진실이 자랑거리이다. (나) 이러한 것들과 반대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 남자, 여자, 연설, 업적, 도시, 행위가 칭찬을 받을 만하면 칭찬으로 기려야 할 것이요, 칭찬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비난을 덧붙일 일이다. (라) 왜냐하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비난하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똑같이 잘못이요 무지이기 때문이다(1절).

고르기아스는 대조법을 사용하여, (가)의 “자랑거리”를 (나)의 “부끄러운 일”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다)에도 이어져, 자랑거리와 부끄러운 일이 받아야 할 일들이 대비되고 있다. 여기서도 또 밑줄 친 곳의 구성에서 보듯이 통사구조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으로 인한 평행법이 나오고도 있는데, 이 평행법은 (라)의 밑줄 친 부분에도 이어져 칭찬과 비난 행위의 대상의 착오를 대

18) ‘바로들기’는 라틴어로 principium, 독어로 ‘Haupteingang’이라 하고, ‘비껴들기’는 라틴어로 ‘insinuatio’, 독어로 ‘Nebeneingang’이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1993b; 2002a: 197 이하) 참고.

조시키고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다)와 (라)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명제가 끌려와 문장의 길이를 늘이고 있고, 공통말터법도 사용되고 있다. 들머리에서부터 고르기아스식 무늬로 여겨지고 있는 문체범주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고르기아스의 말을 듣고 반론을 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칭찬의 대상을 칭찬하고 비난의 대상을 비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르기아스는 왜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것일까? 전체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좇아 완전히 무시할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면 본문과 무관한 것으로 낙인찍어야 할까?²⁰⁾

그렇지 않다. 첫째, 이것은 들머리의 분석을 떠나서도 식장연설의 구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M. T. Cicero 1994: 71절)가 말하는 식장연설의 기본방향, 즉, “미덕과 결부된 것을 칭찬하고, 악덕과 관련된 것을 비난해야” 하는 식장연설의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²¹⁾ 또한 키케로는 미덕을 혈통, 경제력과 같은 외적인 것과 미모와 같은 신체적인 것, 그리고 지혜와 자제와 같은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²²⁾ 이 미덕들은 고르기아스의 ‘자랑거리’에도 들어있다. 이 미덕들이 칭찬되는 한, 우리의 연설문은 식장연설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는 셈이 될 것이다.

둘째, 고르기아스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인들의 말에 공감한 청중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슬며시 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비껴들기라는 특수 형태의 들머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청중이 마음을 열게 하고서 고르기아스가 벌인 일은 무엇인가? 3.1.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다시 한 번 청중이 마음을 놓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해야 마땅한 것은 당연히 말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²³⁾ 바로 그 때, 고르기아스는 난데

19) 고르기아스식 무늬들은 첫눈에 보면 매우 다양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이처럼 대조적 형식을 내보인다. 그가 이 형식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두고, “주관적 마음과 진리, 로고스가 숨기고 있는 진리 사이에서 비극적 대조법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S. Consigny 2001: 155 참고).

20) 이런 생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B. McComiskey(2002: 38 이하) 참고.

21)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22) 앞의 책, 74절 이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1995: 27 이하)도 혈통, 미모, 명예 등을 미덕으로 꼽고 있다.

없이 “헬레네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펴는” 일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르기아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시인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던 청중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자기들이 신뢰하는 시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니, 청중의 이성적 판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듣는 사람은 혹시나 자신의 판단에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되문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솔깃해진다. 결국, 고르기아스는 반감으로 닫혀있던 청중의 마음을 달래어 어느 정도 호의적 반응을 보이게 한 다음, 다시 말하면 호감사기 원칙에 해당되는 작업을 한 다음, 관심 끌기 원칙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말거리가 들머리에서 해야 할 일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원래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비껴들기는 상대방 주장의 결정적 허점을 제시해야 되는데,²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르기아스가 “몇 가지 추론을 붙여”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암시는 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코락스와 티시아스가 이미 연설의 구조를 나누고 있었음에 비추어, 티시아스의 제자라고도 하는 고르기아스도 분명히 연설의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결정적 허점을 드러낼 추론을 나중에 버리에서 하겠다는 이른바 “예방법 Prokatapse”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2.2. 열거리

열거리의 분석에서는 간결성, 명확성, 신빙성 원칙의 실현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연설문의 열거리에서는 일단 혈통이라는 말터를 이용하여 헬레네가 소개되고 있다.

23) ‘버리’에서 보게 될, 헬레네를 꼬드긴 부정적 이미지의 로고스가 여기서만큼은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24) 이 전술의 대표적인 예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안토니우스의 연설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양태종(2002a: 199 이하) 참고.

이 연설의 주제인 그녀가 출생과 혈통으로 보아 뛰어난 남녀들 중에서 뛰어났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도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레다이오,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만 소문 상의 아버지는 인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틴다레오스와 제우스가 이들인데, 그 중 한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들 믿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틴다레오스는 남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제우스는 삼라만상의 주인이다(3절).

헬레네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신화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은 “기술적 재주로서의 수사학적 착상에 대한” 고르기아스의 관심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B. McComiskey 2002: 47).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모아진다. 뛰어난 혈통은 앞에서 보았듯이 외적 미덕이고, 미덕은 칭찬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기아스는 이런 미덕을 지닌 헬레네를 칭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다음에서 보듯이 이를 신체적 미덕인 미모와 연결시켜, 미모의 품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녀의 미모는 신의 미모와 다를 바 없었고, 그녀는 타고난 미모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무수히 많은 남성네들에게 엄청난 욕정을 일으켰다. 단지 몸 하나로 그녀는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남성들을 무수히 자기 주변에 몰려들게 했던 것이다. [...] 이들 모두는 정복하고 싶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정복되지 않는 명예를 위하여 모여들었다(4절).

외적인 미덕과 신체적 미덕의 소유자 헬레네! 두 종류의 미덕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칭찬의 대상인데, 고르기아스는 왜 두 종류의 미덕을 소유한 인물로 헬레네를 그리고 있을까? 그 하나의 해답은 고르기아스가 식장연설이 추구하는 “부풀리기 *amplificatio*”를 구현하고 있다는 데 있다.²⁵⁾ 부풀리기는 단순히 대조법이나 공통말법처럼 문장의 길이를 늘이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의 폭과 높이도 확대하는 수법이다.²⁶⁾ 이 수법을 이용하여 외적 미덕에 신체의 미

25) 부풀리기가 식장연설에 속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기법의 본질이 능가하는 것에 있고, 능가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Aristoteles 1995: 53 참고).

덕을 더함으로써, 고르기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미덕을 그려냄과 동시에 식장연설의 취지에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칭찬받는 사람의 칭찬받지 못할 행동을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일단 칭찬의 요소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난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작아보이게 하는 전략을, 그러니까 다시금 대조적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헬레네를 얻음으로써 사랑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 기쁨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5절)

이 대목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연설의 기능이 이성적 확신과 감성적 기쁨에 있다는 것과 고르기아스가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에 대한 감성의 우위는 놀랍게도 식장연설의 기본 취지이다. 사실 법정연설이나 정치연설은 듣는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중점을 두고, 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감정의 요소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식장연설은 기본적으로 “기쁨”에, 미학적 향유에 중점을 둔다. 그런 까닭에 증거가 필요 없는 논거들이 열거되기 일쑤다. 바로 부풀리기 수법이 쓰이는 것이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이 수법의 특성이 길이를 늘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법은 간결성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위 대목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 생략되고 있다. 열거리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만 말하는 간결성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이 열거리가 간결성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헬레네의 혈통을 소개한 3절과 그녀의 미모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그린 4절은, 누가 듣더라도 “그래, 대단한 가문의 대단한 미녀야!” 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열거리의 또 다른 원칙인 신빙성 원칙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6) 부풀리기를 위하여 쓰이는 표현들에는 첨가조작을 거친 “늘림무늬”가 있다. 이 무늬들의 분류와 쓰임새에 대해서는 양태중(2003a; 2003b) 참고.

3.2.3. 버리

버리의 분석에서는 증명의 형식과 타당성이 분석된다. 이 분석은 주로 표시나 개연적 전제를 이용하여 그럴듯한 결론을 추론해내는 논증법의 실현, 또는 예를 들어 증명하거나 유추명제를 만들어 사실을 증명해내는 예증법의 실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예증법은 소크라테스가 잘 쓰던 것이고, 논증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안한 것이고 보면, 이제 고르기아스가 말한 “추론”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일단 “헬레네를 트로이로 떠나게 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녀가 한 일을 한 것은 운명의 여신의 소원과 신들의 의도, 필연의 여신의 섭리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말을 통하여 설득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가) 이제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 고발한 사람이 고발당해야 마땅하다. (나) 왜냐하면 인간의 예정된 사고로 신의 예정한 바를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약자가 강자를 방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이나 강자가 이끌고 약자가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 신은 힘에서나 지혜에서나 그 밖의 다른 점에서 인간보다 더 강하다. (마) 그러니 책임이 운명과 신에 귀착된다면, 헬레네는 불명예를 벗게 된다(6절).

첫 번째 이유에 대한 “추론”은 (가)의 결론, (나)의 전제, (다)의 전제의 증명과 또 다른 전제, (라)의 또 다른 전제의 증명, (마)의 또 다른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추론은 놀랍게도 삼단논법을 수사학에 적용한 논증법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와 (라)를 각각 대전제와 소전제로 삼을 경우에는 (나)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의 대전제에 포함된 대조되는 내용을 줄이고, 감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결론에 나오는 부자연스러운 일을 “불가능한” 일로 바꾼 점을 감안하면, 이 추론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대전제: 약자가 강자를 방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소전제: 신은 인간보다 강하다.

결론: 인간이 신을 방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위의 대전제에서 초기 “개연성 이론 eikos”을 알려주는 플라톤의 고전적 자리를 떠올릴 경우, 다시 말하면 겁이 없는 약자와 겁이 많은 강자를 떠올릴 경우, 약자가 강자를 강탈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²⁷⁾ 여기서의 대전제는 과학적 증명의 대전제처럼 반드시 참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르기아스의 “그럴듯한 eikos” 추론은 개연성을 이용한 논증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추측은 (가)에서 제시된 고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서도 나온다. 위의 결론을 다시 대전제로 삼고, “헬레네는 인간이다”라는 소전제를 붙일 경우, 결론은 헬레네가 신을 방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바꾸어 말하면, 헬레네의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이 자연스러운 행위를 했다 하여 고발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이를 다시 논증법의 형식을 빌어서 다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고발당해야 마땅하다.

소전제: 헬레네를 고발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결론: 헬레네를 고발한 사람은 고발당해야 마땅하다.

이 구성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서 생략된 대전제를 끌어들이 보았다. 삼단 논법에도 생략삼단논법이 있듯이, 논증법에도 생략된 형식이 있기 때문이다.²⁸⁾ 그럴 경우, 고발을 당해야 할 사람은 헬레네가 아니라 고발자 자신이 되고 만다. 이 모든 것은 헬레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마)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제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귀책사유가 신에게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고르기아스만의 것은 아니다. 프리아모스도 헬레네에

27) 플라톤은 위 대전제의 신빙성을 이용하여, 겁 없는 약자가 자신의 강탈행위를 부정한다고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2002a: 56 이하) 참고.

28)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종(2002a: 221 이하) 참고.

게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고, 신들을 비난한다”고 말하지 않는가!(『일리아드』 3, 164) 따라서 고르기아스는 논증법과 유사한 “추론” 형식을 빌어서, “떠넘기기”라는 수사적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이유인 폭력으로 넘어가보자.

하지만 그녀가 폭력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부당하게 구타당했다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구타한 남자가 분명 잘못된 것이며, 폭력을 당했거나 구타당한 여자는 불운을 겪은 셈이다. 그래서 연설이나 법이나 행위에서 야만적인 일을 한 야만인은 연설에서는 고발되어야 마땅하고, 법에서는 구금되어야 마땅하며, 행위에서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인권이 침해당하고 조국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은 여자, 그 여자는 욕을 먹기보다는 동정을 받아야 합당하지 않을까? 그는 무자비한 행위를 했고, 그녀는 그 행위로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 그녀를 동정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다(7절).

첫 번째 이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책사유를 가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일”과 불가항력적인 일임을 내세워 헬레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공평성의 말터를 이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대비시키고 있다. 어떤 행위에 있어서 칭찬받는 형평성의 미덕은 신에게 경건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일에 신뢰를 보내고, 감형에 관용을 베풀고, 호감에 우정을 보내는 것 등에서 나온다(M. T. Cicero 1994: 78절). 신의 섭리에 따르는 것은 경건함의 표출이라 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가해자의 폭력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그에게 대항하는 용기가 미덕이 아닌가! 따라서 두 번째 이유에서 보인 그녀의 행위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르기아스는 이 논리를 이용하여 헬레네의 행위에 대한 비난은 잠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동정을 받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도로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르기아스는 연설 또는 연설의 효과인 설득을 인간이 상대하기에 버겁기 그지없는 “강력한 지배자”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을 설득하고 기만한 것이 연설이라 하더라도, 연설에 대하여 방어하고 고발을 물리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설은 강력한 지배자다. 연설의 실체는 보잘 것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연설의 성과는 초인적이다. 왜냐하면 연설은 공포를 멈출 수도, 슬픔을 없앨 수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동정심을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8절).

고르기아스는 “초인적인” 연설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똑같이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운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시”의 효과를 끌어 들인다(9절). 이런 성질을 끌어들이 증명에 이용하는 것은 예증법의 사용과 유사하다.²⁹⁾ 고르기아스는 시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공포, 눈물겨운 동정, [이 자리에 없거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에 잠긴 동경”을 심어줄 수도 있고(9절), 이 성질을 닮은 연설이 “기쁨을 유발하고 슬픔을 줄일 수도 있다”며, 연설을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또는 요술로 둔갑시키고 있다(10절).³⁰⁾ 이때 특정 주제에 대하여 “과거지사를 회상하거나 현재의 일을 탐구하거나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고르기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마음의 충고자” 역할을 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단정하고 있다(11절). 이 신념이 연설의 영향을 받아 “설득”되면, 마음의 소유자는 본인의 의지와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귀책사유는 설득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시금 “떠넘기기”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설득은 강제와 외관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강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설득자인 연설은 설득당한 자인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말해진 것에 복종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에 동의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요한 설득자가 유죄이지, 그의 연설에 복종한, 설득당한 자인 그녀가 비난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12절).

고르기아스는 강제와 같은 힘을 가진 설득은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마음을

29)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중(2002a: 223 이하) 참고.

30) 이것은 플라톤의 수사학 정의, “말로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과 상통한다(양태중 2002a: 83 참고).

주무른다”며, 이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즉, 천문학자들은 어떤 신념을 다른 신념으로 갈음할 수 있고, 웅변대회에서는 진실성 보다는 기교가, 철학적 갈등에서는 재치가 신념을 대신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3절). 하나의 신념이 다른 신념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고르기아스는 이를 약의 처방에 비유하면서, 연설의 힘을 다시금 확신시키고 있다.

연설의 힘과 마음의 처방과의 관계는 약의 처방과 몸의 상태에 대한 관계와 같다. 서로 다른 약이 몸에서 서로 다른 체액을 내쫓고, 어떤 약은 나쁘게 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어떤 약은 사는 것을 멈추게 하듯이, 슬픔을 일으키는 연설도 있고, 기쁨을 일으키는 연설도 있으며, 두려움을 일으키는 연설도 있다. 또 청중에게 확신을 주는 연설도 있고, 약을 주어 나쁜 쪽으로 설득되게끔 마음을 홀리는 연설도 있다(14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유는 어떨까? 헬레나가 사랑 때문에 트로이로 떠났다고 해도, 그녀의 행동은 비난을 면할 수 있을까? 고르기아스는 일단 시각을 통한 인지작용의 영향력을 들어 다시금 헬레네를 보호하고 있다.

적대적인 사람이나 [...] 아군과 적군의 적대적 배열을 찬찬히 뜯어보면, 시각은 경고를 받고서 마음에 경고를 보낸다. 그래서 가끔 어떤 위협이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절박한 때에는 사람들이 집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다. 봄으로써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던 법도 깡그리 무시당하게 된다. 이러한 무시는 벌을 지켰다 해서 받은 명예는 물론이고 옳은 일을 했다 해서 불어난 이득도 무시하게 한다(16절).

무엇인가를 보고 겁에 질리면, 법도 명예도 이득도 무시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것은 앞의 설득에서 보았던 논리와 비슷하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전달하는 시의 힘을 이제 시각적 인지작용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고르기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겁에 질린 사람의 “끝도 없는 고민, 무시무시한 질병, 치유될 수 없는 정신착란증”을 제시하며, 인지작용의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 한편(17절), 화가가 “인물을 만들거나 동상을 창조하는 것은 눈에 즐거운 병을 주는 것”이라며 인지작용의 긍정적 결과도 보이고 있다(18절). 이

처럼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고통을 주고, 다른 것은 시각에 즐거움을 준다”(18절)고 주장하는 것은 한 현상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으로서, 앞에서 연설이 슬픔도 주고 기쁨도 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진술이요 전술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헬레네의 경우와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나타난다.

알렉산드로스의 몸이 헬레네의 눈에 즐거움을 주고, 그녀의 눈이 그녀의 마음에 사랑의 열정과 갈망을 보냈다면, 무엇이 놀라운 일인가? 만약 사랑이 신의 힘을 가진 신이라면, 어떻게 약자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으며 그것에 저항할 수 있던 말인가? 그러나 사랑이 인간의 병이자 마음의 무능력이라면, 사랑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처럼 비난받아서는 안되고 불행처럼 생각되어야 한다(19절).

헬레네의 사랑이 인지작용의 결과이든, 사랑의 신의 작용이든, 병이든 간에, 어느 쪽에서 보든지 헬레네는 약자의 입장에 있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통하여, 또 다시 강자에게 귀책사유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녀의 행위의 미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랑이 신의 작용이면 경건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순응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일 경우 그녀의 행위 자체가 칭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환자를 동정할 따름이지 칭찬하지 않으며, 시각적 인지작용에 의한 갈망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병에 맞서 싸우는 투지와 그런 갈망에 대항하는 절제이기 때문이다.

3.2.4. 마무리

마무리의 분석에서는 요약과 감정자극의 원칙이 텍스트에서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분석 대상에서는 요약의 방법을 택하여 연설을 마무리짓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헬레네에 대한 비난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그녀가 자기가 한 일을 봄으로써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또는 연설로 설득을 당해서, 또는 폭력에 이기지 못하여, 또는 신의 섭리에 마지못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경우에서나 그녀는 고발을 피하게 된다. 이 연설로 나는 한 여성에게 씌워진 불명예를 없앴으며, 연설을 시작할 때 설정한 목적도 이룬 셈이다. 즉, 나는 비난의 부당성과 신념의 무지를 내쫓으려고 시도하였으며, 헬레네에게는 예찬을 주고, 내 자신에게는 장난을 칠 마음으로 이 연설문을 썼던 것이다 (20절 이하).

고르기아스의 논지를 따라오던 사람은 헬레네를 비난할 요소가 없어졌으니 이제 그녀를 칭찬해야 되겠다고 믿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추가법 *epiphraisis*”을 이용하여³¹⁾ 난데없이 불쑥 튀어나온 한 마디에 경악하고 만다. 그가 “장난 *paignion*”으로³²⁾ 이 글을 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던 것일까?

곰페르쯔는 고르기아스가 연설의 끝에서 힘주어 “장난”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가 농담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개별 경우를 가져오는 것처럼 가정하고서는 이 개별경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들을 제시하는 전략을 씀으로써, “이혼은 비난받지 않는다”는 어디서도 암시되지 않는 일반명제를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³³⁾ 사실, 고르기아스의 “추론”을 이용하면, 훌륭한 가문의 미인인 유부녀는 애정행각을 벌이더라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 결론의 참과 거짓을 모를 리 없는 그는, 글자 그대로를 좇아 해석하려는 사람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이다.

왜 그는 장난삼아서라도 글을 써야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에 따르

31) 이것도 늘림무늬에 속한다. 이 무늬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양태중(2003b) 참고.

32) 고르기아스식 무늬에 속하는 끝소리거듭법이 원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로곤 헬레네스 덴 엔코미온 이혼 데 파이그니온”, 즉 “예찬”의 ‘엔코미온’과 “장난”의 ‘파이그니온’의 끝소리가 같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이를 조금이나마 보이려고 위와 같이 번역하여 보았다. 이런 점에서, 저 두 낱말을 ‘*encomium*’과 ‘*amusement*’로 번역하는 맥도웰보다, ‘*celebration*’과 ‘*recreation*’으로 번역하는 케네디가 훨씬 더 고르기아스의 문체적 특성에 접근하고 있다 하겠다.

33) 보다 자세한 것은 H. Gomperz(1985: 11 이하), 양태중(2002a: 67 이하) 참고.

면, 소피스트들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다루는 연설 대부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사적인 연설이나 [심사숙고 하게 하거나 올바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기법의 연설을 외우게 했다”고 한다(Aristoteles 1968: 68). 그렇다면, 수사학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고르기아스도 수업자료로 쓸 모범적 연설문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수사교육의 3요소 중 하나인 실습은 모범적인 것을 모방하는 것과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위 연설문은 실습의 첫 단계인 모방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맥도웰도, 고르기아스의 진정한 의도는 자신의 수사적 능력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알리고, 미래의 웅변가에게 힘든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거의 종류를 제시하는데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Gorgias 1999: 10 이하).

4. 분석의 결과

이상의 작업에서, 수사학의 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나온 연설문도 수사범주를 통하여 분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르기아스는 약의 처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설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과 대립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상황제어자의 “신념”을 몰아내고 있다. 이때 그가 말할 내용은 놀라운 말거리에 속하기 때문에, 그는 비껴들기를 이용한다. 공통말터법과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수긍이 가는 일반 명제로 청중의 마음을 녹인 다음, 고르기아스는 헬레네의 외적 미덕과 신체적 미덕을 끌어들이며 칭찬의 대상을 한껏 부풀리고, 그녀 행위의 미심쩍은 요소들을 몇 가지 “추론”을 덧붙여 떼어내고 있다. 이 작업은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구도 속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바, 신의 뜻에 따르는 헬레네의 경건함도 자연스러운 모습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 다음 고르기아스는 이 구도를 가해자와 피해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결 구도에 응용하면서, 계속해서 강자를 따르는 약자의 순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리는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헬레네의 행위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하는 한편, 그녀의 행위를 정당화하고도 있다. 결국, 고르기아스식 추론은 미모라는 자랑거리의 소유주 헬레네에게 씌워진 비난의 요소를

떼어내어, 그녀를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인물로 비쳐지게 하고 있다. 이 추론과정에서 나타난 한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측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제시, 일반 명제의 개별적인 경우의 응용 등은 초기 수사학 이론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연설문은 식장연설의 시초인가? 식장연설에서는 특정 대상이 칭찬되거나 아니면 비난된다. 이 연설문에서는 비난을 받고 있는 칭찬의 대상을 칭찬하려 하기 때문에, 비난의 잘잘못이 가려지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연설로 보일 수도 있다. 또 식장연설에서는 일관성 있게 미덕이 칭찬되거나 아니면 악덕이 비난되어야 한다. 고르기아스는 외적인 미덕(= 혈통)과 신체적 미덕(= 미모)을 칭찬하는 점에서는 식장연설의 구색을 갖추어가고 있으나, 정신적 미덕(= 지혜, 용기, 자제, 경건함 등)을 칭찬함에 있어서는 논리가 빈약하다. 이 빈약성은 고르기아스식 추론이 빚어낸 강자와 약자 구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불법적 폭력에 항거하는 용기를 보였다거나, 지혜를 발휘하여 지배자의 기만적 설득을 물리쳤다거나, 시각적 인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제력을 키웠다거나 하는 행위의 미덕을 칭찬하였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연설문이 식장연설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반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기가 그랬더라면, 헬레네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을 터이고,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는 비난에 대한 반박, 떠넘기기를 이용한 행위의 정당성 주장이 헬레네의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연설을 식장연설의 범주에 집어넣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연설이 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미덕의 종류를 칭찬하고 있다는 점, 주체가 결국 명예로운 삶으로 귀착되고 있는 점, 공통말타와 대조법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부풀리고 있다는 점, 미학적 향유라는 “기쁨”을 위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 등은 식장연설이 추구하는 기본조건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이 연설이 “상상의 작업을 수행하려는 의지”(Th. Cole 1991: 1)로 나타나던 초기 수사학의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나온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연설문을 식장연설의 초기 형태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양태중 (1989): “말감 가르기”, 독일학 연구 5, 97-117.
- 양태중 (1993a): “들머리 만들기”, 독일학 연구 9, 101-115.
- 양태중 (1993b): “들머리의 종류와 그 사용 환경”, 언어와 언어교육 8, 59-81.
- 양태중 (1995): “얼거리(narratio)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교육 10, 53-80.
- 양태중 (1996a): “밝히기(probatio)에 대하여”, 독일학 연구 12, 103-119.
- 양태중 (1996b): “말터(Topos) 나누기”, 언어와 언어교육 11, 83-101.
- 양태중 (1997): “마무리에 대하여”, 독일학 연구 13, 159-176 .
- 양태중 (2002a): 수사학 이야기, 제3판. 부산: 동아대 출판부.
- 양태중 (2002b): “문학텍스트의 수사적 분석 - 착상을 중심으로 -”, 독어학 5, 311-333.
- 양태중 (2003a): “문체범주의 분류 - 늘림무늬를 중심으로 -”, 독일언어문학 19, 15-34.
- 양태중 (2003b): “늘림무늬의 쓰임새”, 독일어문학 20, 405-426.
- Allen, Danielle S. (2001): Gorgianic Figures, Encyclopedia of Rhetoric, ed. by Thomas O. Sloane. Oxford: Oxford Univ., 321-323.
- Aristoteles (1968): Sophistische Widerlegungen, übers.v Eugen Rolfes. Hamburg: Felix Meiner.
- Aristoteles (1991): On Rhetoric, übers.v. G.A.Kennedy. Oxford: Oxford Uni. Press.
- Aristoteles (1995): Rhetorik, übers.v. F.G.Sieveke, 5.Aufl. München: Fink.
- Buchheim, Thomas (1986): Die Sophistik als Avangarde normalen Lebens. Hamburg: Meiner.
- Cicero, Marcus Tullius (1986): Brutus, übers.v. Bernhard Kytzler, 3. Aufl. München: Artemis.
- Cicero, Marcus Tullius (1988): Orator, übers.v. Bernhard Kytzler, 3. Aufl. München: Artemis.
- Cicero, Marcus Tullius (1994): Rhetorik in Frage und Antwort, hrsg. hrsg.u. übers.v. Karl u. Gertrud Bayer. Düsseldorf/Zürich: Artemis & Winkler.
- Cicero, Marcus Tullius (1998): Über die Auffindung des Stoffes, hrsg.u. übers.v. Theodor Nüßlin. Düsseldorf/Zürich: Artemis & Winkler.
- Cole, Thomas (1991): The Origins of Rhetoric in Ancient Greece.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 Consigny, Scott (2001): *Gorgias, Sophist and Artist*. Columbia: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 Gomperz, Heinrich (1985): *Sophistik und Rhetorik*, 2. Neudruck. Aalen: Scientia.
- Gorgias (1991): *Encomium of Helen*, in: *Aristoteles*, 283-288.
- Gorgias (1999): *Encomium of Helen*, ed. & trans. by D.M.McDowell. London: Bristol Classical.
- Homer (1994): *Ilias*, übers.v. Hans Rupé. Darmstadt: Wiss. Buchges.
- Kerferd, G.B. (2003): *소피스트 운동*, 김남두 옮김. 서울: 아카넷.
- McComiskey, Bruce (2002): *Gorgias and the New Sophistic Rhetoric*.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 Platon (1973): *Gorgias*, in: *Werke in acht Bänden Bd. II*, bearb.v. Heinz Hoffmann. Darmstadt: Wiss. Buchges., 269-504.
- Plett, Heinrich F. (2002): *수사학과 텍스트분석*, 양태중 옮김. 서울: 동인.
- Poulakos, John (1983): *Gorgias' Encomium to Helen and the Defence of Rhetoric*, *Rhetorica* vol 1, No 2. 1-16.
- Schweinfurth-Walla, Sigrid (1986): *Studien zu den rhetorischen Überzeugungs- mitteln bei Cicero und Aristoteles*. Tübingen: Gunter Narr.

Zusammenfassung

Eine rhetorische Analyse der gorgianischen Rede Enkomium der Helene

Taezong Yang(Dong-A Univ.)

In dieser Arbeit wird untersucht, ob die rhetorischen Regeln zur Textproduktion auch auf die Textanalyse einer Rede anwendbar sind, und zwar einer vor der Systematisierung der Rhetorik verfassten Rede, nämlich dem Enkomium der Helene von Gorgias. Die Untersuchung ihrer Anwendungsmöglichkeit als Analysekatogorien

liegt der Vermutung nahe, dass das Enkomium auch rhetorische Elemente enthält, weil eine Theorie wie die Rhetorik erst durch die Beobachtung der musterhaften Reden, die Entdeckung ihrer Regelmäßigkeiten und deren Synthetisierung entstanden ist. Deswegen ist die Untersuchung normalerweise mit der Feststellung der im Text angewandten rhetorischen Regeln identisch. Dieses Verfahren aber überzeugt uns, dass dem Gorgias das Gliederungsschema der DISPOSITIO, die Sonderform der Einleitung INSINUATIO, die Prinzipien der Kürze und Glaubwürdigkeit in der Erzählung sowie der Zusammenfassung im Schluss, das dem Enthymem ähnliche logische Mittel LOGISMOS, die Stasis der Qualität, die Topoi der Stammung und Gerechtigkeit, die sog. gorgianischen Figuren usw. nicht fremd sind.

Wegen des Streites um die Zusammengehörigkeit dieser Rede zur epideiktischen wird hier auch untersucht, ob das Enkomium die von den Theoretikern wie Aristoteles und Cicero aufgestellten Bedingungen der epideiktischen Rede erfüllt. Nur "die Apologie" nach der Formalität im Beweis ausgeschlossen, die aber zur Beseitigung des am Gegenstand des Lobes angehängten Tadelhaften erforderlich ist, entspricht das Enkomium dem Prinzip der epideiktischen Rede: Lob der Tugend wie Schönheit und Adeligkeit, Amplifikation bei der Formulierung, Wirkziel des ästhetischen Genusses. Wenn man die Entstehungszeit dieses Enkomiums berücksichtigt, kann man plausibel folgern, dass es eine frühe Form der Lobrede ist.

[검색어] 고르기아스, 헬레네 예찬, 수사학, 수사적 분석, 식장연설
Gorgias, Enkomion der Helen, Rhetorik, rhetorische Analyse,
epideiktische Rede

양태중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유럽어문학부 독어독문학 전공

tzyang@daunet.donga.ac.kr